

구약성경에 나타난 히브리 답관체시의 한국어 시에의 적용  
-답관체시의 정형성을 중심으로- 논문요약 <Abstract>

신충훈  
(총신대 히브리어 교수)

1. 서론

시는 산문과 달리 운율을 중요시하는 문학적 작품이다. 따라서 시의 언어는 산문과 구분하여 운문(韻文)이라고도 일컫는다. 운문이라는 낱말 자체의 의미를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살펴보면 언어의 배열에 일정한 규율이 있는 글<sup>1)</sup>로 이는 “시의 형식을 갖춘 글”을 이야기할 때에도 사용이 된다. 따라서 모든 시에는 나름대로의 운율이 있다고 할 수가 있다. 그 운율이 외형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시 즉 외재율이 있는 시를 정형시라고 일컫는다. 그러나 운율이 외형상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자유시라고 일컬으며 이러한 자유시의 운율을 내재율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각 나라와 민족마다 그 언어에 맞는 외형적 운율을 지닌 시들이 존재한다. 이를 문학에서는 정형시라고 일컫는다. 이러한 정형시들은 언어의 특성 및 민족의 역사와 문화적 관습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다시피 시조라는 형태의 정형시가 존재한다. 오늘날까지도 시조의 정형성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어 한국어의 대표적 정형시로 아직 까지도 시조를 꼽는다. 시인들 중에는 시조시인이라고 자신을 일컬을 정도로 자유시와 구분하여 표기하려는 시인들도 있다.

서양에서는 소네트(Sonnet)라고 일컫는 정형시가 발전하여 왔다. 로마의 전통적 정형시였던 이 소네트는 대개 14행 내외의 길이로 하여 13세기 이탈리아의 민요에서 파생된 것이며, 단테나 페트라르카에 의하여 완성되었고, 르네상스시대에는 널리 유럽 전역에 유포되었다. 특히 영국에서는 와이엇과 사레백작(伯爵)에 의하여 영국 형식의 소네트가 생겼으며 셰익스피어, 밀턴, 워즈워스, 키츠, 로제티, 브라우닝 부인 등에 의한 우수한 작품이 많이 남아 있다. 영국 형식의 소네트는 4·4·4·2행(abab/cdcd/efef/gg)으로 되며, 이것을 셰익스피어 형식이라고 한다. 보들레르, 말라르메, 발레리, 릴케 등도 그들의 중요한 작품을 소네트 형식으로 썼다. 2)

구약성경의 대표언어인 히브리어에서는 답관체시라는 형식의 정형시를 사용하였다. 이는 구약성경의 시편이나 시가서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히브리어 알파벳을 이용한 히브리적 정형성을 살린 시로서 오늘날에도 성경학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시이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시의 운율면에서 중요한 정형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 후에 히브리어 답관체시의 특성과 정형성을 고찰하면서, 이 히브리시의 정형성을 한국어 시에의 적용 가능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우리 한국어의 정형시가 시조라고 일컫는 소위 3, 4, 3, 4 형태의 운율 하나로만 귀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데 답관체시의 정형성을 살리면 다양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Vol. 중 운문(韻文)

2) [네이버 지식백과] 소네트 [sonnet] (두산백과)

한 한국어 정형시를 발전시켜나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

## 2. 문장초두의 중요성이 언어의 정형성에 미치는 영향

정형시를 일정한 형식과 규칙에 맞추어 지은 시라고 정의한다. 각 언어에서 문장의 초두라는 위치는 대단히 중요하다. 문장이란 하나의 완전한 의미단위를 이룬 통사적으로 독립성을 갖는 발화 연쇄체의 한 부분을 의미한다.<sup>3)</sup> 왜냐하면 다른 위치와는 다른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화에서 입을 열어 처음으로 발음하는 낱말은 사람들의 머리 속에 음성과 의미면에서 강하게 각인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장의 초두는 어느 언어에서나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 하나는 초점(focus)적 기능이며 다른 하나는 의미에 대한 강조적 효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sup>4)</sup>

이러한 문장의 초두의 기능은 산문에서만 아니라 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즉 문장의 초두에 나타나는 초점과 강조적 기능의 효과는 역시 시에서도 그 중요성을 유지한다. 그러나 시에서는 문장 단위만이 아니라 시 행과 연의 초두가 문장의 어두의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자주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어두의 효과를 잘 살리기 위해 다양한 언어에서 이를 문학작품에 활용하려고 빈번하게 시도를 하고 있다.

어두의 효과를 잘 나타내는 대표적 시로 히브리어 정형시인 답관체시를 꼽을 수가 있다.

## 3. 히브리어 답관체시에 대하여

### 3.1 답관체 시의 정의

답관체시란 두운시의 일종으로 영어로는 Acrostic Psalms로 명명하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를 따라 써나간 시의 형식을 의미한다. 우리말로 답관체(踏冠體)란 말의 문자적 의미는 “머리를 밟아가는 문체”라는 뜻으로 하나의 시에서 행이나 연의 첫머리에 알파벳 순서로 된 단어가 규칙적으로 등장하도록 배열한 정형시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다.<sup>5)</sup>

답관체라는 용어는 영어로 Acrostic으로 표현을 한다. Zondervan에서 발행한 성경백과 사전에서는 영어의 Acrostic이라는 낱말이 어원상 헬라어 ἀκροστιχίς에서 온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그 의미를 연속되는 행이나 연의 첫 글자가 낱말이나 혹은 알파벳을 이루는 시를 가리킨다고 설명을 한다. <sup>6)</sup>

다시말하면 구약성경에서는 22자의 히브리어 알파벳을 시행의 첫 글자에 사용하여 시를 써나가는 기법을 의미한다. 답관체시의 대표적인 시들은 구약의 시편과 잠언에서, 그리고 애가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시 9-10, 25, 34, 37, 111-112, 119, 145편; 잠 31:10-31; 애 1-4장; 나 1:2-10 일부).

### 3.2 답관체 시의 유형과 실제적인 예

따라서 답관체 시란 각절의 첫 글자를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따라 배열한 형식의 시를 이야기

3) 이정민, 배영남, 언어학 사전. p. 812

4) 이정민, 배영남, 언어학 사전, p. 161.의 focus 부분을 참조하기 바람

5) 제자원,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Vol. 50. p.389

6) The Zondervan Pictorial Encyclopedia of the Bible. Vol. 1, p.39.

한다.

즉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를 순서대로 배열한 시로서 다음의 시편 111편의 예에서 그 예를 살펴 볼 수가 있다.

시편 111편의 시에 대하여 Allen, Leslie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시편 111편의 가장 분명한 특징은 그 문학적 양식이 답관체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시편 112편처럼 여기서도 각 콜론의 첫 글자는 알파벳 순서에 따른 일련의 문자들이다” 7)

(1)

אודה יהוה בכל־לבב	(א)
בסוד ישרים ועדה:	(ב)
גדלים מעשי יהוה	(ג)
דרושים לכל־חפציהם:	(ד)
הוד־והדר פעלו	(ה)
וצדקתו עמדת לעד:	(ו)
זכר עשה לנפלאותיו	(ז)
חנון ורחום יהוה:	(ח)
טרף נתן ליראיו	(ט)
יזכר לעולם בריתו:	(י)
כח מעשיו הגיד לעמו	(כ)
לתת להם נחלת גוים:	(ל)
מעשי ידיו אמת ומשפט	(מ)
נאמנים כל־פקודיו:	(נ)
סמוכים לעד לעולם	(ס)
עשויים באמת וישר:	(ע)
פדות שלח לעמו	(פ)
צוה־לעולם בריתו	(צ)
קדוש ונורא שמו:	(ק)
ראשית חכמה יראת יהוה	(ר)
שכל טוב לכל־עשיהם	(ש)
תהלתו עמדת לעד:	(ת)

(2)는 히브리어 성경 시편 119편의 9절부터 16절 까지의 그림파일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의 완전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알파벳 한 글자를 여덟절씩 배열하고 있다. 따

7) Allen, Leslie 저, 손석태 옮김, 시편 101-150 (WBC Vol. 22) p.167

라서 22개의 문자에 8절을 곱하면 전체는 176절로 이루어져 있으며 답관체시의 대표적인 시로 꼽힌다. 여기서는 히브리어 두 번째 문자인 베토로 시작되는 구절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아래에는 동일한 구절의 개역개정판 성경의 역본을 제시하였다.

(2)

9 בַּמָּוֹת יִזְכֹּרְנָעוּר אֶת־אֲרוּחוֹ לְשֹׁמֵר כְּדַבְרֶךָ:  
 10 בְּכָל־לִבִּי דִרְשָׁתִיךָ אֵל־תִּשְׁגָּנִי מִמִּצְוֹתֶיךָ:  
 11 בְּלִבִּי צַפְנֹתִי אִמְרֹתֶיךָ לְמַעַן לֹא אֲחַט־אֵלֶיךָ:  
 12 בְּרוּךְ אַתָּה יְהוָה לְמִדְּנֵי חֲקֶיךָ:  
 13 בְּשִׁפְתֵי סִפְרֹתַי כָּל־מִשְׁפָּטֵי־פִיךָ:  
 14 בְּדַרְךְ עֲדוּתֶיךָ שִׁשְׁתִּי כַּעֲלֵ כָל־הוֹן:  
 15 בְּפִקְדֶיךָ אֲשִׁיחָה וְאֲבִיטָה אֲרוּחֹתֶיךָ:  
 16 בַּחֲקֵתֶיךָ אֲשַׁתְּעֶשֶׂע לֹא אֲשַׁכַּח דְּבָרֶיךָ:

(3)

9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0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11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2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13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14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15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16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8)

8) 대한성서공회, 성경전서 한글 개역개정판 (시119:9-16.) p.890. 2005년

시편 119편은 답관체시의 최고봉으로 알려져 있다. 여덟절씩 한 문자로 운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22개의 문자로 8절씩 두운을 살리고 있기에 시편 119편은 176절로 구성된 히브리어 성경에서 제일 긴 장(chapter)에 해당한다.

두 번째 문자인 베틀에 해당하는 구절인 9절부터 16절까지의 앞부분의 발음은 음소 문자인 베틀(ב)로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베틀 장이라고도 명명한다.

(4)

해당절	초두의 히브리어 낱말	한국어 및 영어 음역
9	בָּמֵה	바메 bameh
10	בִּקְוֹל	베콜 bekol
11	בִּלְבִיבִי	베리비 belibiy
12	בָּרֻךְ	바루크 baruk
13	בִּישֵׁפָטַי	비세파타이 bisepatay
14	בִּדְרֵךְ	베데레크 bederek
15	בִּפְקֻדֵיכָא	베피쿠데이카 bepiqudeyka
16	בְּחֻקֹּתֵיכָא	베후코테이카 behuqoteyka

어두에 나오는 낱말들의 음소의 일치로 히브리어 답관체시는 대표적인 정형시로 손꼽힌다. 여기에서는 히브리어 두 번째 문자인 베틀(ב)로 시작하는 절이 8절이 반복되고 있다. 히브리어 베틀은 우리말로로는 비읍(ㅂ) 영어로는 b에 해당하는 문자이며 음소이다.

특별히 시편이 아닌 다른 성경책에서도 답관체시의 형태가 발견이 된다. 그 대표적인 성경이 예레미야애가이다. 예레미야 애가의 첫 네장은 답관체시의 정수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Harrison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The first four are written as acrostics, making for a highly elaborate and sophisticated construction. The twenty-two consonants of the Hebrew alphabet are used in succession to control the length of each of the first four poems, and they also mark the commencement of the individual stanzas or strophes." 9)

특히 예레미야애가 3장은 같은 글자가 세절씩 반복되고 있다. 다음은 예레미야 3:1-6의 예에 해당한다.

(5)

9) Harrison, R. H. Jeremiah & Lamentations, p. 196. Tyndale Press, England.

אָנִי הַנִּבְרָר רָאָה עֵינַי בְּשֶׁבֶט WTT Lamentations 3:1

עֵבֶרְתּוֹ:

אוֹתִי נָתַנּוּ וַיִּלְךְ חֶשֶׁךְ וְלֹא-אֹרֶךְ<sup>2</sup>

אֶךְ בִּי יָשָׁב יַהֲפֹךְ יָדוֹ כָּל-הַיּוֹם: ס<sup>3</sup>

בָּלָה בְּשָׂרֵי וְעוֹרֵי שִׁבְרַי עֲצָמוֹתַי: 4

בָּנָה עָלַי וַיִּקַּף רֹאשׁ וּתְלָאָה: 5<sup>10)</sup>

בְּמַחְשָׁבִים הוֹשִׁיבֵנִי כִּמְתֵי עוֹלָם: ס<sup>6</sup>

1-3절은 히브리어 알파벳 첫 번째 문자인 알렙으로 시작하고 있고, 4-6절은 히브리어 알파벳 두 번째 문자인 베트로 시작하여 각각 3절씩 두운을 나타내는 어두 정형시임을 알 수가 있다.

#### 4. 한국어 시어의 적용

##### 4.1 한국어의 특성에의 답관체시의 정형성의 적용-어두정형시를 주창하며

한국어의 경우에는 다른 언어와 달리 발음상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음절 중심의 언어이며, 한국어를 표기하는 한글에서도 음절 중심의 표기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음소문자인 다른 언어들의 특성과는 달리 음소적 특성을 지니면서도 음절중심의 표기법을 구사하고 있는 한국어에서는 시의 운율에서 음절의 중요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정형시라 일컫는 전통적 시조에서는 우리가 다 알듯이 3 4 3 4 와 같이 음절의 숫자와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런 한국어의 특성을 생각한다면 어두에서 음절 숫자의 효과만 부각시켜주어도 시의 운율적 특성을 드러내주는 주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문장의 초두 대신에 한국어 시에서는 시의 각 행의 초두가 이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음절의 숫자를 중요시 여기는 한국어의 특성에 따라 부분적인 정형시인 시행의 첫머리인 어두(語頭)에 정형성을 유지하는 어두정형시를 주장하는 바이다.

먼저 시의 각행의 초두의 음절수를 통일시킴으로써 두운적 특성을 지닌 보다 다양한 운율적 효과가 가능해진다. 한국어 시의 정형적인 운율을 보다 풍부하게 나타낼 수가 있다.

##### 4.2. 어두정형시의 예와 구분

어두정형시는 음절의 숫자에 따라 다음 세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다.

###### 어두정형시의 분류

###### 1. 외자 어두시

(각 행의 초두에 한음절어를 반복적으로 배치하는 시)

###### 2. 두자 어두시

(각 행의 초두에 두음절어를 반복적으로 배치하는 시)

###### 3. 다자 어두시

10) BHS 애가 3:1-6

(각 행의 초두에 세음절 이상인 낱말을 동일음절의 낱말을 반복적으로 배치하는 시)

#### 4. 가나다 정형시

어두 정형시에서 음절 배치시에 눈여겨 볼 만한 것은 다음과 같다.

명사 이외의 품사인 낱말들은 각 음절 수에 맞는 낱말이나 활용형을 배치하게 되며 명사의 경우에는 조사를 분리하여 순수한 명사만의 음절 숫자가 동일한 낱말을 배치하여도 되고 조사를 접속한 음절 수가 동일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 4.2.1. 외자 어두시

각 행의 초두에 단음절어를 반복적으로 배치하는 시를 말한다

다음은 외자 어두시의 예를 보여주는 신충훈의 창작시이다

(6)

#### 아침의 축복(외자 어두시)<sup>11)</sup>

신 충 훈

날이 밝아온다  
새 아침이 온다

밤의 어둠을  
또 다시 걷어내며  
꿈이 솟는다  
새 희망이 솟는다

온 몸을 비추는  
새 아침의 햇살아래  
길을 걷는다  
새 길로 나아간다

주께서 허락하신  
참 소망의 약속  
해가 솟으면  
내 꿈도 솟아난다

해가 떠오르며  
새 출발할 수 있는  
날이 밝아온다  
새 아침이 온다.

11) 신충훈. 꽃잔디의 노래. p. 24. 2017. 도서출판 신문에

4.2.2. 두자 어두시

각 행의 초두에 두음절어를 반복적으로 배치하는 시를 말한다.  
다음은 두자 어두시의 예를 보여주는 신충훈의 창작시이다

(7)

내일의 노래 (두자 어두시)<sup>12)</sup>  
신 충 훈

내일이 있어서  
오늘이 행복해요  
태양이 떠오르듯  
희망이 돌아나요

희망을 주는  
내일의 존재  
마음엔 항상  
기쁨이 넘쳐나요

오늘이 힘이 들고  
고통이 넘쳐나도  
내일이 존재하여  
멈출 수가 없어요

여린 새싹이  
더욱 가치 있는 것은  
웃는 내일이  
항상 있기 때문이지요

어둠이 다가와도  
좌절이란 없어요  
내일이 다가오는  
증거이기 때문이지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내일의 희망은  
차별이 없이 누구에게나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

12) 신충훈. 꽃잔디의 노래. p.30. 2017. 도서출판 신문예

#### 4.2.3 가나다 정형시

또한 히브리어 답관체 시의 형태와 유사하게 한국어의 자음 배열을 나타내는 가나다라 순서로 시행의 초두를 배열하는 가나다 정형시를 주장하는 바이다. 히브리시에서 사용하는 형식을 우리 시에 도입하는 것이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가나다 정형시는 한국어 정형시를 풍부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8)

#### 희망의 나라로 (가나다 정형시)

신 충 훈 (시인, 아동문학가)

가자 가자 나가자 희망의 나라로  
나의 꿈, 이웃 꿈을 모두 이루기 위해  
다함께 노래하며 앞으로 가자  
랄랄라 꿈을 이루는 신나는 사회

마음엔 희망이 넘쳐흐르고  
바른 뜻 바른 생각 갖고 나가면  
사회는 밝아지고 기쁨이 넘쳐요

아름다운 이웃들과 이루는 희망  
자연스런 신뢰가 생겨나지요  
차별 없는 사회가 꿈을 이뤄요  
깜깜한 어둠도 막을 수 없죠

타파할 수 없는 장벽 이제는 없어요  
파란 희망이 자라나는 사회  
하하하 웃으며 꿈을 이루어가요 13)

#### 5. 결론

하나의 시에서 행이나 연의 첫머리에 알파벳 순서로 된 단어가 규칙적으로 등장하도록 배열한 히브리 정형시의 일종인 답관체 시를 통하여 우리는 두가지의 큰 특징을 살펴보았다.

하나는 문장 초두의 중요성과 시에서의 시행과 연의 초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 민족의 문자인 한글의 우수성을 새삼확인하여 히브리 민족이 자신들의 문자에 맞는 정형시를 만들어 내었듯이 우리 한글의 특성에 맞는 정형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를 알게해 준다는 것이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시발점이 되어 한국어 시에서의 다양한 정형성이 시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논문을 마친다.

#### BIBLIOGRAPHY (참고문헌)

13) 신충훈. 꽃잔디의 노래. p.40. 2017. 도서출판 신문예

#### 원서 및 번역서

-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BHS), 1984, Deutsche Stuttgart.
- Bromiley, Geoffrey. W. The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 1979.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 Brown, William. P. 하경택 역. Psalms(시편). 2015. 대한 기독교 서회.
- Calvin, John. The Calvin Commentaries: Psalms (존 칼빈원저 성경주석; 시편) 1999, 성서연구원
- Gillingham, S. E. The Poems and Psalms of the Hebrew Bible. 1994. Oxford University Press.
- Harrison, R. K. Jeremiah & Lamentations. 1973. Tyndale Press.
- Longman, Tremper. 임요한역, Psalms: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y Vol. 16. 2017. 기독교 문서 선교회.
- Walter, Brueggemann. The Psalms and the Life of Faith. 1995. Fortress Press. Edinburgh
- Zondvan Publishing House, The Zondvan Pictorial Encyclopedia of the Bible. 1978.

#### 국내서

- 신충훈. 꽃잔디의 노래. 2017. 도서출판 신문예
- 이정민, 배영남. 언어학 사전. 1990. 박영사
- 정인찬. 성서대백과 제1권. 1979. 기독교지혜사
- 제자원. 옥스퍼드원어성경대전 50권. 2005.

“구약성경에 나타난 히브리 답관체시의 한국어 시에의 적용  
-답관체시의 정형성을 중심으로-” 논평

박유미  
(안양대 교수)

본 논문은 구약성경에 나타난 히브리시의 특징 중 하나인 알파벳시(답관체시)의 특징 중에서 특별히 정형시라는 부분을 한국어 시에 적용시키려고 시도한 논문이다. 정형시는 일반적으로 외형적 운율을 지닌 시들로 우리나라 시조와 같이 3434의 운율이 일정한 것을 말한다. 이런 운율의 정형성과 히브리시의 답관체를 결합하여 어두 정형시라는 새로운 정형시의 형식을 제안하였다.

발표자는 문장 어두는 초점을 분명히 드러내고 강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어두의 효과를 이용해 한글 정형시를 쓸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어두의 효과를 잘 살린 시의 예로 히브리어로 쓰인 알파벳 시를 들었다. 히브리어 알파벳 시는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를 시행의 맨 앞에 연속적으로 등장시키는 시이다. 이 시의 목적에 대해 학자들은 첫째로 전달과 암기에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시인의 지혜와 사상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발표자는 히브시의 답관체에서 착안하여 어두의 음절 숫자를 일정하게 하는 음절 숫자의 효과만 부각시켜 주어도 시의 운율적 특성을 드러내는 주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 예로 외자 어두시, 두자 어두시, 다자 어두시, 가나다 정형시 등 다양한 형식의 어두 정형시를 제시하였다. 이렇게 어두 정형시라는 새로운 형식의 정형시를 제시한 것은 본 논문의 기여라고 하겠다. 특별히 시의 어두에 동일한 음절이 배치된 시는 읽을 때 뿐 만 아니라 시를 볼 때도 미학적으로 질서 있어 보이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런 시의 예로 발표자의 자작시들을 보여준 것은 발표자가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로 시에 적용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그 적용이 가능하고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긍정적으로 생각된다.

다만 논평자는 아쉬움을 함께 이야기해야하는 입장이라 몇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는 저에게 주어진 논문의 형식이 너무 느슨하다는 것이다. 시에 관한 논문이라는 특징을 감안하고라도 전체적으로 형식이 정형적이지 않다. 글자 크기나 폰트, 줄 간격 등 형식에 맞추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둘째는 히브리어 답관체시와 어두정형시의 관계를 좀 더 분명히 드러내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히브리어 답관체시는 시의 맨 앞에 갖은 자음 혹은 같은 모음을 두는 두운시와 형식적으로 유사해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같지는 않지만 119편의 경우는 8절씩 같은 문자를 반복하여 두운시의 특징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외자 어두시와 두자 어두시의 예로 보여준 시에서 외자 어두시와 두자 어두시의 특징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발표자는 조사를 제외한 단어만을 가지고 외자 어두시, 두자 어두시를 만들었지만 시를 읽을 때와 시를 눈으로 볼 때 외자 혹은 두자 어두시라는 형식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조사가 붙어야만 말이 되는 한글의 특성 때문인데 이 부분은 운율이나 형식면에서 분명히 고려가 되어야 한다. 논평자의 생각에 조사까지 포함해서 외자, 혹은 두자, 다자 어두시가 되어야 운율이 맞는 정형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본 논문을 통해서 히브리시의 답관체에서 어두의 중요성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두의 운율을 일정하게 제시하는 어두 정형시라는 새로운 형식을 알게 되어 매우 유익하였다. 감사합니다.

## 신충훈의 <구약성경에 나타난 히브리 답관체시의 한국어 시에의 적용> 논평

권혁관

(현) 요단출판사 편집장, (전)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초빙교수

### 발제자 논문의 요약

발제자는 구약성경 히브리어 시편, 잠언, 예레미야 애가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나 있는 히브리 알파벳 순서의 답관체(또는 이합체) 형태의 표현을 한국 시에도 적용하여 단조로운 시의 패턴에서 다양성을 추구해 보자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는 이를 위해 히브리 성경 어디에서 답관체 시가 쓰였는지를 언급하고 그 실례로 시편 119, 예레미야 애가 본문을 제시한다. 이후 발제자는 자신이 답관체 형태로 창작한 한 편의 시, <희망이 나라로>와 답관체 시의 정형성을 적용하여 문장 처음 음절수를 통일한 두 편의 시, <아침의 축복>과 <내일의 노래>를 소개하고 있다.

### 논평자의 비평

#### 1. 논문의 강점

본 논문의 장점은 발제자가 히브리 문학에 나타난 여러 형태 중 하나인 답관체를 자작시를 통해 그 적용의 예를 보여준 점에 있다.

#### 2. 논문의 약점

##### 1) 답관체 시가 주는 효과에 대한 설명

발제자는 히브리 성경에서 답관체가 어떤 형태의 시를 말하며,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말했다. 그러나 그런 답관체 형태가 답관체를 적용하지 않은 시와 어떻게 본문의 주제를 차별적으로 부각시키는지에 대해서 상술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 비록 시편 119가 히브리 알파벳 22개를 순서에 따라 한 글자를 8절씩 배열하여 전체 176절로 구성하여 여호와와의 말씀의 완전성을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지만 애가서에서 발제자의 평가는 외형적 형태로서만 언급하였지 그것이 독자에게 주는 효과에 대한 설명은 부재하다. Harrison의 인용은 답관체 시에 대한 일반적 언급에 그치고 있을 뿐 답관체 시가 주는 본문에서 주제와 관련하여 주는 효과에 대한 설명에서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발제자는 세 편의 자작시인 <희망의 나라>, <아침의 축복>, <내일의 노래>에서 답관체와 초두 정형을 취함으로써 어떤 문학적 효과를 주고 있는지 설명이 있어야 했다.

##### 2) 기존 답관체 시에 대한 연구

발제자의 글을 보면 한국어 시에서 답관체로 된 형태의 시가 이전까지는 없었거나 매우 부족했다고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발제자는 본인이 한국어 시에서도 답관체를 시도해 봄으로써 시의 형태를 새롭게 해 보자고 제안하는 것처럼 해석된다. 그러나 논평자의 시각에서 보면 지금까지 답관체로 된 시의 형태가 없었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알려지지 않았다고 본다. 문자화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이름이나 특정 단어의 글자로 시작되는 삼행시나 사행시 짓기는 지

금도 한국 사람이라면 즐겨 행하고 있는 놀이문화이다. 좀 더 이 주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이 볼 것 같으면, 2016년 자유경제원이 주체한 제1회 건국 대통령 이승만 시 공모전에서 “To the Promised Land”가 우수상을 받았다. 그런데 이승만을 찬양하는 이 시의 첫 글자를 연결하면 ”NIGAGARA HAWAII”(니가 가라 하와이)로 이승만을 조롱하는 내용이 있었다. 같은 대회 입선작이었던 우남찬가 또한 마찬가지였다.

초두에 같은 음절 수로 시작하는 시 또한 찾아보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상(李箱, 김해경, 1910 ~ 1937)의 ‘이런 시(詩)’의 한 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내가 그다지 사랑하던 그대여  
내 한평생 그대를 잊을 수 없소이다  
내 차례에 못 올 사랑인 줄은 알면서도  
나 혼자서 꾸준히 생각하리라  
자 그러면 내내 어여쁘소서

이상(李箱)의 시는 조사를 뺀 단어로만 볼 때 초두 글자는 모두 외자로 시작한다. 의미로는 마지막 행만 제외하고 ‘나’이다. 그러나 마지막 행은 ‘내내’를 통해 소리글자로는 ‘나’를 말하지만 의미적으로는 전혀 다른 “내내”를 사용하고 있다. 발제자의 <아침의 축복>, <내일의 노래>와 같은 시에서 단지 초두 글자의 음절 수를 맞추는 것은 시의 제목과 주제에서 큰 효과를 주지 못하는 것 같다. 시란 눈으로 보기 보다는 입으로 말하는 낭송으로 귀로 듣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글자가 한 자나 두 자나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시가 소리 언어로 들려져야 하는 것이라면 같은 발음이나 비슷한 발음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 논평자의 제언

답관체와 관련된 시나 문장은 히브리 성경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인은 Ιησους Χριστος Θεου Υιος Σωτηρ(예수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의 첫 글자를 조합하며 ΙΧΘΥΣ ‘물고기’라는 단어로 자신의 신앙을 표현했었다. 발제자의 논문은 앞으로 시에서 답관체 형태를 취함으로 독자에게 좀 더 다양한 형태로 시를 전달하려는 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바라기는 기존 한국문학에서 답관체 형태로 된 시를 찾아 그 특성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 제안하며 기대한다. 더불어 시뿐만 아니라 설교의 형태에서 답관체로 된 대지를 구성하여 청중들에게 기억되는 설교로 만들어 보는 것도 적용해 볼 만한 영역이라고 여겨진다.